

코너스톤교회 32주년,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션 이루자”

이종용 목사 은퇴식도 열려
3인 공동목회 체제로 개편

코너스톤교회가 창립 32주년을 맞아 감사 및 이종용 목사 은퇴예배를 드렸다. 이날 코너스톤 성도들은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큐티사역을 통한 신앙의 변화를 나누고, 이종용 목사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눈물의 간증을 쏟아냈다.

설교에서 이종용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행 13:1-3)란 제목으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금 일깨웠다.

이 목사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언어와 생각, 신앙 생활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며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 안을 돌보고 세상을 품는 두 눈을 가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가 자체로서 눈, 코, 입, 귀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성령 충만하면 결코 분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목사는 오늘날 교회가 1세와 2세, 언어와 세대, 문화로 갈라진 현실을 지적하며 “하나



코너스톤교회 사역자들. ©기독일보

되는 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예배 중 통역을 통해서도 연합할 수 있다. 주님의 일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다. 단기선교를 갈 때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어른, 1세와 2세 모두가 함께 갔다. 그렇게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교회는 거룩한 고통이 따르게 된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힘을 얻었다”며 “코너스톤교회가 어떤 환란 속에서도 믿음과 선교의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

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미쉘 김 집사, 민준호 IJM대표, 최경주 장로, 박종렬 목사(조이어스교회),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김동환 집사 등이 축복의 메세지를 나눴다.

이들은 “그동안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 삶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이 있었다”며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이제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는 결단을 하신 것은 큰 축복이다. 40년 가까이 목사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제게는 큰 복이었다. 늘 위로와 도전을 주는 선배 목사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종용 목사의 투병 시기를 함께 겪은 한 목회자는 “암이 찾아왔을 때 그걸 이겨내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며 “은퇴라는 타이어 교체의 시기를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범위를 더욱 넓혀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코너스톤교회는 데이빗 리 목사, 흥성표 목사, 조슈아 서 전도사가 3인 공동목회 체제로 구성되어, 이들이 예배 및 행정, 교육부 등 교회 전반에 참여해 이끌게 된다. 이종용 목사는 원로목사로 섬기게 된다. 이날 모든 순서는 송정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美 기독교인들, ‘성경적 가치관’ 급격 약화

미국 내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성경적 가치관, 특히 생명 존중과 가정의 정의에 대한 신념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성인 중 ‘생명 존중(Pro-life)’ 입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2년 만에 63%에서 43%로 급락했다는 점이다.

크리스천 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10월 13일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FRC)와 애리조나 기독교대학교 문화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조사는 최소 월 1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성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의 핵심 도덕 이슈에서 교회 출석자들과 세속 사회 간의 간극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 압력 속에서 교회가 신념을 지키는 데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FRC 성경적 세계관 센터의 데이비드 클로슨(David Closson) 소장은 “수십년간 기독교인들이 태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 왔지만, 이번 결과는 문화적 혼란이 교회 안으로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사회 이슈와 세계관: 교회 출석 미국인에 대한 국가 조사’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FRC의 연례 행사인 ‘기도하고, 투표하고, 일어서서’ 서밋을 앞두고, 2023년 동일 조사 결과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연구를 이끈 조지 바나(George Barna) 박사는 생명 존중 입장이 20%p 하락한 동시에 ‘낙태 찬성(Pro-choice)’ 입장이 22%에서 35%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는 교회 내 거의 모든 인구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으로 생명 존중 입장이 강했던 집단에서 큰 하락이 있었다. 자신을 복음주의자로 자처하는 이들은 33%p, 50세 이하 성인들은 2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념 일관성에 관한 질문에서

는, 교회 출석자의 73%가 여섯 가지 낙태 관련 항목에서 상충된 견해를 보였고, 10%는 “명확한 입장”을 형성할 만큼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모호성 증가는 “성경이 낙태에 대해 명확하다”는 확신이 줄어든 것과도 관련이 있다. 2023

년에는 교회 출석자의 65%가 성경이 낙태에 대해 명확하고 결정적이라고 믿었으나, 2025년에는 그 비율이 51%로 떨어졌다.

강혜진 기자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7 Day 24hours (213)400-6363

마동환 변호사 그룹

www.marh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면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 그룹 | 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T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01상
클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 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5 다민족연합기도대회

“Repent, Revive, Restore”

두여, 수년 내에 대부흥을 보내 주소서!

일시 2025년 11월 2일(주일) 4:0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미국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미국사의 위기 때마다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 부흥을 보내주셔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주셨습니다. 미국은 부흥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부흥이 수년 내에 임하여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비상기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민족들이 함께모여 하나님께 무릎 끓고 부흥과 회복을 구하는 의미깊은 모임에

하나님과 미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문 : 송정명, 한기형, 김영길, 김인식, 최홍주, David Andrade, David Diaz, Dion Elmore, Jorge Puentes (이상 목사)

대표대회장 : 한기홍목사

공동대회장 : 강준민, 고승희, 고태형, 구봉주, 권혁빈, 국윤권, 김경진, 김기동, 김태형, 김종규, 김한요, 남성수, 노창수, 민경엽, 박성근, 박신옹, 박은성, 박현성, 샘신, 신승훈, 신용환,

심상은, 이종용, 이창남, 진유철(이상 목사, 가나다 순), Wolfgang, Elmer Jackson

사무총장 : 강태광목사(323-578-7933)

준비위원장 : 강순영목사(310-995-3936)

공동준비위원장 : 이창남목사(818-317-9582)

주최 : 은혜한인교회, JAMA, OC교협, 남가주교협, 성시화운동본부, 청교도신양회복운동

주관 : 다민족연합기도대회준비위원회

후원 : 미주복음방송 및 크리스천 언론사들, 시온산재단, CMF, OC목사회, OC장로연합회, OC기독교전도연합회, 각지역 교회협의회와 목사회와 여성목사회



“중세교회의 유덴자우…홀로코스트로 이어져”

〈성경, 빅 픽처를 보라!〉
저자 김인식 목사 세미나
홀로코스트보다 더 큰 상처…
유대 피난민에게 문을 걸어
잠근 교회와 국가들, 루터의
반유대주의 주장…히틀러로
이어져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는 10월 20일과 21일(월·화) 이틀간 ‘성경, 빅 픽처를 보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강사로는 김인식 목사(킹덤월드미션 대표,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첫째 날 강의는 이상명 총장(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의 기도로 시작됐다. 김 목사는 “성경은 통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 성취 과정이며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할 때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왕 같은 제사장’, ‘예덴’, ‘예루살렘’,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설명했다.

이어진 두 번째 강의에서 김 목사는 ‘하나님의 전략’을 주제로, 타락한 문명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소개했다. 그는 행위 언약(아담 언약, 모세 언약)과 은혜 언약(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예루살렘 언약을 비교하며, 언약의 통합적 성취가 메시아 왕국의 도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브라함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계승되었고, 오늘날 중동 분쟁까지 이어지는 근본적 토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땅 언약을 무시하면 성경 전체의 흐



갈보리선교교회에서 10월 20일과 21일(월·화) 이틀에 걸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김인식 목사(킹덤월드미션 대표)를 강사로 ‘성경, 빅픽처를 보라’ 세미나가 열렸다.

름과 예언의 완성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아브라함 언약과 가나안의 회복이 단순한 민족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방인도 믿음으로 새 언약에 동참했지만,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대체된 것은 아니다”라며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에 복을 흘려보내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세계적 갈등의 배경을 다뤘다. 김 목사는 ‘유엔’, ‘교황’, ‘오바마’, ‘이슬람 지하드’, ‘팔레스타인 분쟁’, ‘인본주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등 현실 정치·외교 이슈를 언급하며 그 영적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유엔은 이스라엘의 수도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황청은 예루살렘을 유대교·기독교·이슬람 3대 종교의 공동 성지로 국제 도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슬람 지하드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며, 인본주의적 시각에서는 이스라엘을 ‘불법 국가’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유대계 오스트리아 언론인인 테오도어 헤르츨은 19세기 후반 시오니즘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시오니스트 회의’를 개최하고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을 위해 국제법으로 보호받는 고

향을 만든다”는 결의를 했다.”

네 번째 강의에서는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Titus)에 의해 예루살렘성이 함락되면서 약 58만 명이 사망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와 노예로 잡혀갔다고 전했다.

그는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대인을 역사에서 완전히 지우기 위해 ‘이스라엘’과 ‘유대 땅’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으로, ‘예루살렘’을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로 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이후 반유대주의 정서로 이어졌으며, 이 사상이 교부들뿐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순교자 저스틴은 ‘유대인들과 맷으신 하나님의 계약은 더이상 효력이 없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대신한다’고 말했다. 이그나티우스는 유대 절기와 축제에 동참하는 자를, 주님과 제자들을 죽인 사람과 공범자라고 정죄했다.”

터틀리안은 “유대인을 반대하며”라는 책을 저술해, 반유대주의를 공고히했고 오리겐은 교회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라는 해석을 최초로 도입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역시 유대교에 반대했는데, 안식일을 폐하고, 유대적 뿌리를 근절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 크리

소스톰(344-407), 제롬(345-420), 어거스틴(354-430)은 노골적으로 반유대주의를 표명했다.

크리스토톰은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 유대인들은 악마에 붙잡힌 자들로 탐욕스러운 돼지와 같다.”고 말했다.

제롬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해할 능력이 없고, 그들이 참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가혹하게 핍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어거스틴은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하다며, “저주를 받아 지구 위를 떠돌아 다닐 운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덴자우(Judensau, ‘유대의 암퇘지’라는 뜻)의 부조는 기독교와 가톨릭 사회 안에 만연했던 반유대주의의 정서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말했다. 유덴자우는 중세에 처음 등장했으며, 교회나 대성당의 외벽에 새겨져 유대인들이 돼지의 젖을 먹는 모습으로 형상화되면서 길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조롱과 혐오의 상징이 되었다.

반유대주의는 십자군 전쟁(1096-1291) 때도 만연했다. 유대인은 무슬림과 함께 그리스도의 적, 소탕 대상으로 여겨졌고, 예루살렘 전투 중 그들을 회당에 가두어 불을 지르는 만행까지 저지른다. 유대인을 식별하는 노란별을 붙인 것은 나치가 시초가 아니었다. 1251년, 교황 이노센트 3세

가 그들에게 노란색 표식을 부착해 식별했다. 중세시대 노랑은 거짓과 비겁, 불충과 배반을 의미하는 치욕의 색이었다.

반유대주의는 흑사병, 종교재판, 루터의 주장 등을 거치며 더 강화되었다. 루터는 1517년 종교개혁 당시, 유대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는데, 김인식 교수는 이 루터의 주장이 히틀러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회당을 불태우라, 집들을 파괴하라, 기도책과 탈무드를 몰수하라, 립비에게 못 가르치게 하라, 어기면 처형하라, 통행권을 박탈하라, 강제노동을 부과하라”

그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일어난 포그롬(pogrom, 특정한 민족집단, 특히 유대인에 대하여 일어나는 학살과 약탈을 수반하는 군중 폭동),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짚어가며, 유대인의 고난의 역사에 대해 전했다.

그는, 홀로코스트보다 더 큰 상처는 “대부분의 교회와 세계 국가들이 학살에 대해 방관하고 유대 난민들에게 문을 걸어 잠근 것”이라며, 당시 폴란드 유대인 랍비 바이스만델이 무고한 유대인들만이라도 살려달라는 편지를 로마 교황청에 보냈을 때, 돌아온 대답에 대해 나눴다.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 어린이의 피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유대인의 피는 죄악이다.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이런 별을 받는 것이다. 당신들을 죽여 마땅하다.”

그는 반유대주의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이며, 크리스천은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인식 교수의 저서 〈성경, 빅 피쳐를 보라!〉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인식 목사는 웨스트힐장로교회에서 은퇴 후 킹덤 선교회 대표로 섬기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스라엘의 회복적 종말』, 『성경, 빅 피쳐를 보라!』 등 저서를 통해 독자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알립니다

다음주 10월 31일자 신문은 휴간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1면 기사 〈美 기독교인들, 성경적 가치관〉에 이어서

더욱이 이 51% 중 절반(53%)만이 생명 존중 입장을 지지했고, 거의 3분의 1은 낙태 찬성 입장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연구는 강단에서의 교육 부족도 지적했다. 교회 출석자의 절반 이상(53%)이 “교회에서 낙태에 대해

연 1회 이상 설교나 교육이 이뤄진다”고 답했지만, 개신교인 26%, 가톨릭 신자 16%는 “이 주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 줄고 있다. 교회 출석자 중 “낙태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41%에서 2025년 28%로

감소했다.

클로슨 소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 존중과 같은 근본적인 이슈에서 도덕적 명확성을 잃는 것은 심각한 제자 훈련의 위기”라며 “성경은 모든 인간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고 분명히 가르친다”고 강조했다.

25일 ‘GEN Worship’ 찬양세미나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와 나성영락 교회가 청소년과 차세대 예배 팀을 위한 위십 세미나를 오는 10월 2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성영락교회(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에서 개최한다.

등록: QR코드
일시: 10월 25일(토) 오전 9:00 ~ 오후 3:00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서부노회 목사 안수공고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총회와 노회 그리고 각 지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종을 세워 주의 거룩한 사역에 헌신케 하시니,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 총회 서부노회가 다음과 같이 목사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이사야 49:16)

■일시 : 2025년 11월 2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예수생명팀교회 (조준석 목사 시무교회) (213)700-5546



안수자 : 이 지현 강도사

약력

한국 장신대 성경통신대학 졸업 (1990)
UCA 학사 및 석사 (2018)
미주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상담학 박사 과정 이수
아멘교회(고, 이재성 목사님)과 동역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강도사 고시 합격 서부노회 강도사 인허 및 목사 고시 합격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서부노회 목사 안수 위원회 안수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서부노회

총회장 김창영 목사

서부노회 전 노회장 정완기 목사

설교 대상 헨리아펜젤러대 죄수아 신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회장 송정명·한기홍 목사)가 주최 한 제10회 남가주한인신학교 연합 설교페스티벌이 18일(토) 오전 9시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에서 개최됐다. 올해 대상은 헨리 아펜젤러대학교 소속 죄수아 신 전도사가 수상했다.

올해 주제는 '연합을 이루어 나가자'로, 참가자들은 7개 제시 본문 가운데 하나를 택해 12분 이내 설교를 발표했다.

대회 10주년을 맞아 참가 각 신학교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차세대 강단 사역자 양성에 대한 지속적 후원에 사의를 표했다.

심사위원장 김은철 교수(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는 "이민 교회 현실 속에서 설교 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설교는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 사역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설교대상(2,000달러) : 죄수아 신(헨리아펜젤러대) △주제 상황화 대상 : 한병권(미성대) △주제 호소력 대상 : 김혜성(국제개혁대) △설교 구성력 대상 : 허창(예반겔리아대) △적용 실천성 대상 : 브라이언 리(그레이스미션대) △설교 시각화 대상 : 임우리(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 △다문화 접근성 대상 : 김진국(월드미션대).

이번 페스티벌 장학금 후원은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은혜한인교회, 기쁜우리교회, 새생명비전교회, 이병문 장로(미주성시화운동본부) 등이 동참했다. 이윤준기자



제 10회 남가주 한인 신학교 설교 페스티벌이 18일(토) 오전 9시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대상은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 죄수아 신 전도사에게 돌아갔다.

2025 LA 통일리더십 포럼 선한정지기교회서 열린다

선한정지기교회(송병주 목사)는 10월 22일부터 27일(수~월)까지 "동행교회 목회자 초청 및 통일선교" 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10월 22일(수) 오후 7시 히즈드림실에서 주찬미 목사와 장기호 권사가 간담회를 이끈다.

10월 24일(금) 오후 8시 교회 본당에서 탈북민 출신 장기호 권사가 "벌목공 이야기"라는 간증을 전한다. 10월 25일(토) 오전 6시에는 주찬미 목사(여명교회 담임)가 새벽예배를 이끌게 되며, 10월 26일(주일) 오후 1시 45분~3시 45분까지 소예배실 2층에서 다큐 '人(인) 사이트: Into North Koreans' 상영되고, 김의혁 교수와 이다니엘 목사(IAI 사무총장), 주찬미 목사(여명교회 담임), 서예레미야 선교사(NONO NK 대표)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통일선교주간 마지막 날인 27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선한정지기교회 본당에서 '2025 LA 통일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 숭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에서 주최하고 선한정지기교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 1부는 김의혁 교수(숭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가 "분단의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다. 2부에서는 북한의 현



실을 담은 다큐멘터리 '人(인) 사이트: Into North Koreans' 상영되고, 김의혁 교수와 이다니엘 목사(IAI 사무총장), 주찬미 목사(여명교회 담임), 서예레미야 선교사(NONO NK 대표)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강사로 나서는 김의혁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프린스턴신학교 신약학 석사(Th.M.)와 풀러신학교 선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하나원 하나님 교회 담당목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숭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교수, 커넥트코리아투게더 공동대표, 선교통일한국협의회 통일청년위원장 등 통일선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GMU 세대통합예배 실천·확장 컨퍼런스 개최

플러튼에 위치한 그레이스미션 대학교가 다음세대 신앙계승 프로젝트의 세 번째 단계로 '세대통합 예배의 실천과 확장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11월 3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부에나파크 더블트리 바이 힐튼(Sierra Room)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무료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실천 연구를 진행해 온 연구팀의 결과 발표와 함께, 다양한 환경과 규모의 10개 파트너십 교회가 실행한 세대통합예배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각 교회들이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도전과 열매가 소개되며, 이



를 통해 한국·미주 교회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컨퍼런스 문의 및 등록은 이메

일(cjhan@gm.edu)

또는 전화

(714-217-1212)를 통해 한철주

교수에게 가능하다.

토마스 맹 기자

연세대 동문회 25일 '건강박람회' 개최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

가 10월 25일(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남가주 사랑의교회(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에서 '연세 건강박람회'

를 개최한다.

이들은 2010년 첫 연세 건강박

람회를 개최한 아래 박람회를 지

속하며 한인들에게 의료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박람회는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

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주요 내용은 ▲일반건강검진및상담(내과,

안과,소아과,정신과등 전문분야)

▲독감 예방접종, 간염 및 혈당

검사 ▲치매·우울증·불안증 진

단 ▲건강 관련 세미나 등이다.

행사 관련 문의는 박지나 흥

보·미디어 담당(310-293-5054,

yonseiconnectsc@gmail.com)

에게 하면 된다.

성암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LA성암교회 (Holy Rock Church, 김요한 목사)가 오는 11월 2일(주일) 오전 11시 창립 5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어린 시절 목회자를 꿈꿔온 김요한 목사는 아주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LA기쁨의 교회에서 사역 훈련을 받았으며, 지난 2020년 11월 1일 성암교회를 개척했다.

교회 주소: 2551 Beverly Blvd #D LA, CA 90057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전기세 50~90% 절감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택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OC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오픈뱅크-오픈청지기재단, 저소득층 지원 사업 확대

저소득층 재정적 안정 위해
직업 교육, 창출, 창업 관련
봉사 단체에 지원
정부 관련 사업 및 직업 교육
봉사단체들과 논의 지속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저
소득층 지원 사업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오픈뱅크(행장 오상교)와 오픈청
지기재단(이사장 최화섭)은 지난
14 일 저소득층 지원 비영리단체인
메이커스 허브(Makers Hub)에 자
원금을 전달했다. 메이커스 허브는
공구 대여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로 주택이나 사업체의 개보수
를 위해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에게
수리용 공구를 대여해 주는 곳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훔디포와 같은
상업용 매장에서 공구를 대여할 때



지난 14 일 비영리단체 메이커스 허브를 방문한 오픈뱅크의 제이 박 전무(원쪽)가 메이커스 허브 관계자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오픈뱅크

재정적인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 메이커스 허브는 지역 주민들이 이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 조경, 공

예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주택 개선, 소규모 사업 창업, 기술 습득을

가능하게 하고 재정적 안정과 자산을 키워나가도록 돕고 있다. 또한 메이커스 페이스(Makers Space)라

는 공간과 목공실도 마련해 등록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창업과 관련된 봉사 및 사업에 대한 지원과 후원을 늘려갈 계획이며 특히 여러 정부관련 지원 사업에도 동참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재정적 안정을 찾는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오픈뱅크의 오상교 행장은 “현재 직업 창출 및 교육,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여러 비영리단체들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단순히 지원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직업 창출 및 창업이 얼마나 이뤄지는지를 종합 분석해 지원 사업의 규모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셉 리 기자

오네시모 선교회 후원회 콘서트 성황

오네시모 선교회 후원회(대표
임태우 목사, 후원회장 한영숙
권사, 총무 캘리 리 전도사) 콘서트
가 지난 12일(주일) 오후 6시 플
러톤 시에 위치한 은혜의 강 감리
교회(김태호 목사)에서 열렸다.

김석기 설립목사의 사회로 시

협연에 안찬송 연주자도 참여했
다. 공연 중간에는 오네시모 사역
관련 영상 간증이 상영되며 선교
회의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번 콘서트는 임 목사 부임 이
후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에서 유
익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
되었듯, 오늘날 갇힌 자들에게 복
음을 전하고 그들을 유익한 제자
로 세우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겠
다”고 밝혔다.

오네시모 선교회는 오직 후원
회 회원들의 현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다.

오네시모선교회는 후원회원들
의 현금으로만 운영되는 비영리
사역 단체로,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 35개 교도소와 카운티·주정부
산하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재
소자와 그 가족들을 섬기고 있다.
또한 교도소 방문 사역, 문서 사
역, 성경 통신대학, 예방 사역, 추
방자 연계 및 재활사역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수
행하고 있다.

선교회는 후원회 회원들과 자
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주소: 775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전화: 714-739-9100

홈페이지: www.onesimusminis-try.org/

작된 콘서트는 임태우 목사의 기
도에 이어 소프라노 황혜경, 메조
소프라노 정희숙, 바리톤 김정호,
바리톤 장상근 등 연주자들의 여
러 독창과 중창이 선보여 졌으며
남성중창단 칸투스도 자리를 빛
냈다.

피아노 반주에 김소리와 첼로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후원회원들의 헌
신적인 섬김이 어우러져 세대 간
의 격차를 좁히는 의미 있는 자리
로 평가됐다.

선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새
로운 세대의 참여와 리더십 전환
의 계기를 마련했다. 임태우 목사



아이엠 교회 창립 16주년 감사예배

LA에서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온
의 사랑을 심어왔다.

정종원 담임목사는 “지난 16년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에 가능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도 복음의 본질을 불들고 하나님의
나리를 확장하는 교회로서 나가겠
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 목사는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겠
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www.iamch.org
www.instagram.com/iamchurchla

김현석 박사 암 찾기 의료세미나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회장 이현옥, 이하 시니어센터)는
10월 27일(월) 오전 11시 15분 시
니어 센터 강당 2층에서 김현석 박
사를 초청해 〈생로병사와 암〉을 주
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부병리, 임상병리, 혈액병리 전

문가인 김 박사는 Harbor-UCLA 레
지던트, City of Hope 혈액암, 림프
암, 골수암 전문 닥터이다. 18 세 이
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무료이다.
주소: 965 S. Normandie Ave.
#200, LA, CA 90006
문의: (213) 387-7733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엔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안심하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2026” 달라지는 혜택, 많은 약 보험의 많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Annie Moon이 필요하십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으실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 Disclaimer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SMG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홍보대사
고두심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15 organizations which offer 97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e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your options.”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 여정을
함께합니다

2025년 메디케어 보험가입 및 변경기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65세 이상 시니어이신가요?

파트 A와 B를 모두 소지한 65세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
혹 특정한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면 나이에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메디컬그룹에 가입전에 꼭 확인하세요!

보험회사, 메디컬그룹, 주치의 3가지를 선택하세요.
주치의가 센터메디컬그룹 소속인지 꼭 확인하세요.

회원 전용 혜택도 잊지마세요!

병원에서 집까지 무료 라이드 서비스, 매년 제공되는 문화 공연과
각종 행사를 센터메디컬그룹 회원이시면 무료로 즐길수 있습니다.

센터메디컬그룹

문의전화 888.847.3098

위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센터메디컬그룹 이야기를 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바라보는 예수’ 리딩지저스 컨퍼런스

21일 충현교회서 진행돼… 한규삼 목사, 스티븐 콜먼 교수 등 발제

‘리딩지저스 컨퍼런스 2025-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 컨퍼런스가 ‘창세기에서 바라보는 예수’라는 주제로 21일 서울 충현교회(담임 한규삼 목사)에서 열렸다. 이 컨퍼런스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충현교회와 웨스트민스터신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첫째 발제자로 한규삼 목사(충현교회 담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창세기는 원시복음이라고 불린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창 3장 15절)에 따르면, 죄로 인해 원수가 발생했다”며 “죄와 짹하면 하나님과 원수 짓는 일이다. 복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됐던 우리가 다시 죄에 대해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죄와 짹하면 탓하는 버릇이 생긴다. 선악과 범죄의 원인을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하나님 탓으로 돌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본문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계 12장 5절에서도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부술 것이라고 했다. 비록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지리멸렬한 전투에도 끝내 압승할 것이라고 성경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된다. 후손(seed, 씨)의 의미가 피를 이어받아 태어날 인물이기보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주장이다.(갈 4장 4절, 롬 16장 20절, 요 3장 8절)”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리하면 창세기에 드러난 원시복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과의 전쟁에서 끝내 넉넉히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스티브 콜먼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교수는 ‘창세기 12장 1-6절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믿음의 삶은 예측 가능한 삶이 아니다. 편안한 길도 아니다. 믿음의 삶은 도전과제가 나타나고 대립하며 때론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며 “위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혼란을 마주하면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신다. 이는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과거의 관습에서 단절할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힘, 능력을 의지하던 삶이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섭

겨왔던 과거의 삶에서 단절하라는



한규삼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값비싼 부르심이자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진입하라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하다”며 “자신을 송배하는 삶, 우상 송배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죽구다. 이 부르심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발제한 스티븐 콜먼 교수(웨스트민스터신학교)는 “과거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새로운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죄와의 끝 없는 투쟁이면서, 예수를 쫓는 삶이다”라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

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마 16:24-25)는 말씀처럼, 믿음은 과거와의 단절이지만 혜아릴 수 없

는 축복을 받는 삶이다. 많은 것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걸 보상받는 삶이다.(막 10장 29-30절)”라고 했다. 그는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은 조건적이 아니다. 정직하고 경건한 바른 행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이라며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었다. 우상 송배자였고 죄로 물들었던 아브라함이 받은 부르심과 복은 그가 죄인 일지라도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이다. 이건 모든 성도에게 적용된다. 믿음은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자격과 노력, 행위로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을 자격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쳐 주시는 것”이라며 “

하브리서 11장 8-10절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약속으로 받을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롬 9장 6-8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우리가 받을 죄로 인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아브라함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약속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모든 게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화되고 있으며 마지막 날 영화롭게 될 것”이라며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결실을 맺는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순종 혹은 우리의 믿음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달린 것”이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면 충분하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다고 선포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십자가 이후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자”고 했다. 이 밖에 이날 김한요 목사(메델교회 담임)가 ‘창세기 22장 1-14절 시험하시는 하나님’, 줄리어스 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가 ‘창세기 29장 15-35절 야곱의 갈망’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노형구 기자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 올해는 콩고 위해

오는 11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 전 세계 130개국 약 10만 개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 올해는 지난 9월 8일 공격으로 기독교인 100명 이상이 살해되고 수백 명이 납치된 콩고민주공화국에 초점을 맞춘 특별 기도가 진행된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이하 한국 VOM)는 모든 교회와 소그룹이 이번 기독교인 학살 사건을 추모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영상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게시했다.

한국 VOM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20여 년 전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을

제정한 이후, 전 세계 교회가 매년 11월 첫째·둘째 주일에 이 날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지난 9월 8일 IS와 연계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연합민주군(ADF)이 콩고민주공화국 교회를 겨냥해 유혈 공격을 일으키기 오래 전부터 전 세계 교회가 콩고민주공화국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9월 8일 공격은 장례식 중에 발생했다. 현지 성도들은 당시 목격한 장면, 즉 26명의 기독교인이 장례식에서 총에 맞는 장면이 계속 떠올라 여전히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변 지역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종격을 당했고 집과 차량이 불에 떴다. 안타깝게

도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이 사건에 관해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현숙 폴리 대표는 “콩고민주공화국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게 된 것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현지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아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소그룹, 가정, 개인들이 콩고민주공화국 기독교인 및 전 세계 핍박받는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서 무료 자료들을 웹사이트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WEA 종교자유 위원회의 통계를 인용해 “오늘날 북

한이나 중국이나 이란 같은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알고 있지만,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에 해당하는 3억 6천만 명이 신앙 때 문에 박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기독교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국 VOM에서 2025년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을 맞아 제작한 영상 「다니엘과 알린(Daniel and Aline)」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끔찍한 핍박을 당한 기독교인들을 돌보는 사역에 집중하는 콩고민주공화국 기독교인 두 사람의 실효를 담고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 영상은 9월 8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사건과 매우 유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격을 당하는 콩고민주공화국 형제자매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고통은 삶의 모든 국면을 방해하고 모든 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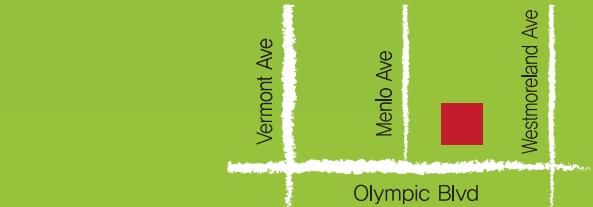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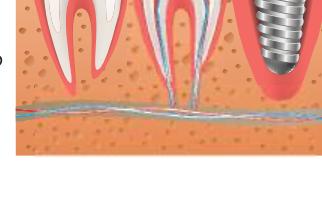
현숙 폴리 대표는 “이 영상이 콩고민주공화국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직면한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지만,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분위기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시청하기에도 적합하다”며 “다니엘과 알린 및 두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을 체험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매우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일들을 체험한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의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서울메디칼그룹 X 한미메디컬그룹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의료진, 더 많은 병원, 더 다양해진 케어

5,500여 명의 의료진

각 분야의 주치의와 전문의가 크게 늘어나
나에게 맞는 의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폭 확대된 네트워크

제휴 병원, 의료기관, 헬스플랜 등이 늘어나
더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올바른 영양섭취, 운동 등 생활 속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등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개 가까운 진료과목과 케어

일반진료에서 재활, 정신건강, 가정간호까지
환자 증상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향상된 시스템

쉬운 진료 예약, 빠른 전문의 및 병원 허가증
환자 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맞춤형 통합 케어

평소 관리가 중요한 시니어를 위한 정기
체크업 등 한분, 한분 가족처럼 돌보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기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워진 **서울메디칼그룹**이
섬세한 진료와 편안한 서비스로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800.611.9862

SMG
서울메디칼그룹



SMG 카카오채널에
방문하세요!



홍보대사 고두심

UMC 보수 대안 세계감리교회, 전 세계 6천개 회원 교회 돌파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의 신학적 보수 대안으로 창립된 세계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이하 GMC)가 전 세계적으로 6천개 교회를 회원으로 둔 교단으로 성장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GMC는 지난 2022년 5월 1일 공식 출범했으며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6천 번째 회원 교회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GMC는 게시글에서 "6천개의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6천개의 제단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다"며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언어 속에서 6천개의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교회를 환영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역사회와 세상에 전하기 위해 계속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 세계감리교회 총회에서 열린 예배.

GMC의 출범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연합감리교회의 동성 결혼 축복 및 동성 간 성관계자 안수 허용 문제를 둘러싼 내부 분열에서

비롯됐다.

UMC 총회는 여러 차례 관련 규정 개정을 시도했지만, 보수 진영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부결됐

다. 그러나 교단 내 진보 성향 목회자와 지도자들 중 일부는 교단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적용을 거부했다. 이에 2020년 1월, 서로 다른 신학적 입장을 지닌 UMC 지도자 16명이 모여 '분리 협약(Separation Protocol)'을 제안했다. 이는 신학적 이유로 교단을 탈퇴하려는 교회들이 새로운 보수 교단을 설립할 수 있는 절차와 재정적 지원 방안을 포함한 합의안이었다.

그러나 2020년 예정된 UMC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봉쇄 조치로 여러 차례 연기되었고, 협약은 공식 논의되지 못했다. 결국 2022년 3월, GMC 조직위원회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해 5월 독자적인 교단 창립을 선언했다.

이후 2년 동안 수천 개의 교회가 UMC를 탈퇴해 GMC에 가입했다. GMC 과도기 행정 책임자 이미경 기자

(Transitional Connectional Officer) 키스 보예트(Keith Boyette) 목사는 지난해 1월 CP와의 인터뷰에서 "GMC 회원 교회는 대부분 전 UMC 교회이지만, 다른 교단 출신 교회, 독립 교회, 그리고 새로 개척된 교회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GMC는 약 4천20백개 교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었다.

이후 수개월 만에 GMC는 6천 개 회원 교회라는 이정표를 달성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열린 UMC 총회에서는 오랜 논란 끝에 '교리와 장정'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다만 지역 연회나 개별 교회가 자체적으로 해당 규정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졌다.

이미경 기자

"美 복음주의, 분열과 양극화 직면 공적 영역 참여 신학 필요"

전미복음주의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이하 NAE) 회장 월터 김(Walter Kim) 목사가 현대 복음주의 운동이 미국에서 직면한 주요 과제를 분석했다.

김 회장은 최근 댈러스 신학교 팟캐스트 '더 테이블'(The Table)의 한 에피소드에서 댈러스신학교(DTS) 신약학 선임 연구 교수인 대럴 복(Darrell Bock)과 함께 현대 복음주의의 현안을 논의했다.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에 대해 김 회장은 '분열'과 '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지금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복음주의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민 패턴, 거주 지역, 뉴스 출처, 신학적 유산에 따라 복음주

의는 사회의 분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극화는 단순한 분열보다 더 심각하다. 서로를 불신하고 경멸하는 파편화가 분노 알고리즘과 결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저널리스트 콜린 우다드의 저서 『American Nations』를 인용하며, "미국 내 11개 문화 지역이 소셜미디어와 내부 이주로 인해 마치 지각판처럼 서로 마찰하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점점 더 종교적으로 다양해지고 세속화되는 미국에서 '공유된 유대-기독교 세계관'이 상실되고 있다"며 "이 현상이 '상실감'이나 '분노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선교의 기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복음주의는 관계 강화, 기도, 예배 같은 개인적 영역에는 강하지만, 정책과 집단 행동 같은 공적 문제를 다루는데는 약하다"며 "우리는 구원 신학과 개인적 회심, 결혼 생활을 돋는 일에는 능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다르다. 직장 윤리뿐 아니라 '일 자체의 윤리'는 무엇인가? 이민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안보와 환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신명기 6장을 언급하며 "이 구절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뿐 아니라, 경제적 관행 같은 사회적 영역도 다루고 있으며, 저울이 균등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대럴 복 교수는 "교회가 개인적 문제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은 개인과 개인주의에 초점을 맞춘 미국 문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나는 교회에 '문화적 참여의 신학'이 부족하다고 자주 말해왔다. 그 신학이 없기에 우리는 그 것에 대해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애리조나기독교대학 문화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복음주의자 수는 약 3천만 명에 달한다.

강혜진 기자

中 구금된 시온교회 에즈라 진 목사 위해 기도 요청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이사장 주승중 목사, 사무총장 강대홍 목사, 이하 KWMA)가 중국 베이징 시온교회의 에즈라 진(김명일, 진명리) 목사와 지도자 약 30명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기도를 요청했다.

KWMA는 17일 "중국 베이징 시온교회 에즈라 진(김명일) 목사와 교회 지도자 약 30명이 구금된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10일 경, 베이징과 여러 지역에서 시온교회 지도자들을 동시에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는 중국 내에서 복음적 신앙을 지켜온 대표적인 가정교회 연합체로, 2007년 창립 이후 온라인과 소그룹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이 일이 중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고통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KWMA는 "모든 사람이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며 "이는 인류 보편의 권리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중국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가기를 소망한다"며 "중국 정부가 종교 공동체의 평화로운 예배와 교제의 자유

월터 김 목사. ©유튜브/댈러스 신학교



마음이 아픈 시대,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정신건강 이해와 위기 대응 (25 CTH)

Mental Health Foundations & Crisis Response

교회와 선교지 리더를 위한 필수 전문 과정!



임상심리학 박사 리디아 전

GIFT전인코칭전문학교 원장



전달훈

의학박사 GIFT전인코칭전문학교 교수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 불안과 우울, 어떻게 알아차리고 도울 수 있을까요?
- 교회 안의 마음 아픈 성도, 어떻게 돌볼까요?
- '죽고 싶다'는 사람의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 영적 돌봄과 정신건강 이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핵심 과정 정보 (Key Info)

- 기간: 7주 과정 (2025년 10월 27일 ~ 2025년 12월 8일)
- 시간: 매주 월요일 저녁 7-10시 (미 서부 시간, PST)
- 방식: 온라인 ZOOM 라이브 강의

런칭 기념, 특별 프로모션 혜택!

- 스페셜 런칭 기념 수강료 특별 할인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사역자 특별 장학금: 목회자, 선교사, 사모님께 \$200 지원
- 입학 등록비 \$200 전액 면제

이 과정을 통해 얻게 될 특별함

- 최고의 강사진: **리디아전 임상심리학 박사 & ICF 전문 치와 조셉전 의학박사(MD)의 통합 직강!**
- 현장 중심 솔루션: 목회, 선교, 코칭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제적 기술을 배웁니다!
- 공인 자격증 및 학점: 미국 Mental Health First Aid(MHFA) 공식 자격증 발급 및 Shalem 대학원 석사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 / 이수 크레딧 안내

- 본 과정은 25 CTH (Coaching Training Hours)로
- 샬렘 국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2 학점 인정
- 청강 가능.

수강신청



소수 정예반, 선착순 마감 주의! → 지금 신청하여 기회를 잡으세요.

등록 마감: 10월 24일 (금)

교육문의 714-298-1115

www.giftcoachinginstitute.com

info@giftcoachinginstitute.com

체포된 中 가정교회 지도자 진밍리 목사 딸 “박해 잊지 말라” 호소



진밍리 목사의 딸 그레이스 진 드렉셀이 폭스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YouTube/Fox News

중국 당국의 지하교회 탄압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구금된 저명한 목회자의 딸이 세계 교회에 “중국의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잊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레이스 진 드렉셀(Grace Jin Drexel)은 19일(이하 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Fox News Sunday)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 세계 교회의 일부이며,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길 바란다”며 “그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드렉셀은 미국 시민으로, 최근 구금된 에즈라 진 맹리(Ezra Jin Mingri) 목사의 딸이다. 진 목사는 10월 10일 중국 광시성 베이하이(北海)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당국은 그에게 “불법 정보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드렉셀은 “정치적 동기로 조작된 혐의”라고 주장했다.

BBC가 입수한 구금 통지서에 따르면 진 목사는 현재 베이하이 제2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정보망의 불법 사용’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드렉셀은 “이는 단순히 종교 박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구실일 뿐”이라고 말했다.

진 맹리 목사는 1989년 텐안먼 민주화 시위에도 참여했던 인물로, 2007년 중국 베이징에서 ‘시온교회(Zion Church)’를

이미경 기자

파키스탄, 극단주의 이슬람 정당 TLP에 대대적 단속 돌입



지난 10월 13일 TLP 소속의 멤버들이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정에 대해 반발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Screenshot from YouTube, News18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정부가 최근 극단주의 성향의 이슬람 정치조직 ‘테흐리크-에-라바익 파키스탄’(Tehreek-e-Labbaik Pakistan, 이하 TLP)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고 2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동안 기독교인을 비롯한 소수 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폭력과 증오를 선동해 온 단체에 대한 이번 조치는 기독교계의 신중한 환영을 받고 있다.

펀자브 주 정부는 지난 13일 새벽, TLP의 ‘가자 연대 행진(Gaza Solidarity March)’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개시했다. TLP는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정을 ‘팔레스타인 억압을 위한 음모’로 규정하고, 라호르에서 출발해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었다.

펀자브 경찰에 따르면, 충돌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으며, 일부는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TLP 측 사망자가 3명이라고 발표했지만, TLP 소설미디어 채널들은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난했다.

라호르에서 약 50km 떨어진 무리드케 지역에서 이뤄진 단속 작전 이후, 당국은 TLP 시위 참가자 2,700여 명을 체포하고, 출국금지 명단에 2,800명을 추가했다.

최승연 기자

고밝혔다. 또한 전국 각지의 TLP 관련 모스크와 신학교 60여 곳이 폐쇄됐으며, 라호르 본부 역시 봉쇄됐다. 그러나 TLP 수장 사드 후세인 리즈비와 그의 동생 아나스 리즈비는 체포를 피해 카슈미르 자치지역으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리암 나와즈 샤리프 펀자브 주총리는 성명을 통해 “폭력을 선동하고 증오를 퍼뜨리며 법을 어긴 자들은 모두 체포될 것”이라며 “극단주의 단체 지도부를 반테러법 4조 명단에 등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테러 및 종파주의 혐의자들을 등록·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반테러 법률의 핵심 조항이다. 정부는 또한 TLP의 재산과 자산을 몰수하고, 포스터·광고·계좌를 모두 차단하며, 증오 조장 콘텐츠를 담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LP는 2011년 펀자브 주지사 살만 타시르를 살해한 경찰관 몸타즈 카드리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여성 아시아 비비를 옹호한 이유로 암살됐다. 이후 TLP는 ‘신성모독법 수호’를 내세워 전국적인 폭력 시위를 주도하며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2017년, 2020년, 2021년에도 이슬람 선지자 풍자화를 이유로 수차례 폭력적 시위를 일으켜 경찰관 다수가 희생됐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1년 TLP에 대해 반테러법에 따른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단체 측과의 협상 이후 같은 해 11월 해제한 바 있다. 이후에도 TLP는 2023년 라호르-이슬라마바드 행진을 주도하며 일시적인 활동 제한 조치를 받았지만, 정부의 유화책으로 재차 활동을 재개했다.

이번 단속은 헌법 제17조 2항에 따라, 지방정부가 정당 금지를 연방정부에 요청하면 연방정부가 이를 대법원에 회부하여 최종 판결을 받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15일 내에 이 사안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김성식 담임목사
어부이예배 오전 11:00
영혼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청년초성경부 주일 오후 2:00
~토 오후 3:00

LA 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니무처럼 뜰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LA 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엘리야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5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6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7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8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9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10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11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12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13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14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15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16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17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18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19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20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21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22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23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24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25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26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27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28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29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30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31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32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33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34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35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36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37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38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39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40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41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42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43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44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45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46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47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48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49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50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51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52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53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54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55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56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57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58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59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60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61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62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63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64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65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66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67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68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69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70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71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72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73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74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75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76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77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78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79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80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81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82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83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84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85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86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87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88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89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90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91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92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93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94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95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96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97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98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99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100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101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102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103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104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105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106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107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108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109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110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111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112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113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114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115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116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117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118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119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120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121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122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123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124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125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126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127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128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129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130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131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132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133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134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135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136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137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138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139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140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141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142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143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144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145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146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147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148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149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150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151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152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153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154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155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156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157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158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159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160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161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162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163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164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165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166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167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168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169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170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171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172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173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174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175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176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177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178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179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180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181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182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183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184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185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186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187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188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189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190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191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192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193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194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195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196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197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198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199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200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201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202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203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204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205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206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207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208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209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210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211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212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213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214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215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216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217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218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219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220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221부예배 오후 3:30 본당
주일222부예배 오후 5:30 본당
주일223부예배 오후 7:30 본당
주일224부예배 오후 9:30 본당
주일225부예배 오후 11:30 본당
주일226부예배 오후 1:30 본당
주일227부예배 오후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2244 / evergreenhill.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후 6:00
EM 예배 오후 9: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후 9:45
주일 3부 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집으로 오병이어의 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encecg.org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GRCEM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성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1부 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후 11:30
3부 예배 오전 11:30 영어성년부 오후 9:30, 11:30
한국대학생선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세영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yfirstchurch.org

1부 예배 오전 7: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 예배 오전 7:30 청년부 예배 오후 2:00 남성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 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화~금) 9: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un@hanmail.net

1부 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정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LA 동부 지역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 예배 오전 11:40 금요성경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영어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호주, 세계 최대 도박 손실국 기독교 단체 “국가적 중독 위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호주가 1인당 도박 손실액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중독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호주기독교연합(Australian Christian Lobby, ACL)이 경고했음을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ACL 미셸 피어스(Michelle Pearse) 대표는 “2024년 한 해 동안 호주인들이 도박으로 잃은 금액이 약 320억 호주달러(미화 약 211억 달러)에 달한다”며 “불법 온라인 베팅과 지하 도박장을 포함하면 실제 손실은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피어스 대표는 “이 수치는 단순한 경제적 통계가 아니라, 가정이 붕괴되고, 자살과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극의 그림자”라며 “중독에 의존해 변성하는 산업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수년간의 의회 조사와 여론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혁은 멈춰 있다”며 “그 이유는 도박이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이며, 너무 많은 권력층이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피어스 대표는 특히 호주 전역의 술집과 클럽, 호텔에 설치된 ‘포커머신’(슬롯머신)을 “절망을 착취하도록 설계된 중독의 도구”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이 장비들은 특히 저소득 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 경제적 약자들이 가장 쉽게 피해를 입는다”며 “이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숨은 세금’”이라고 비유했다. 피어스 대표는 “기계는 3초마다 베팅할 수 있고, 한번에 최대 10호주달러까지 걸 수 있어 한 시간에 수천 달러를 잃을 수도 있다”며 “베팅 한도를 1달러로 낮추자는 요구는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박 피해 뒤에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삶이 있다”며 “이 산업은 사람의 중독을 먹고사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도박 문화에 점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비디오 게임의 ‘루트박스’, 스포츠 베팅 광고,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이 도박을 정상화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의도적인 ‘유인’이며, 담배 회사들이 한때 청소년을 고객으로 길들였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경고했다. 호주연구소(The Australia Institute)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60만 명의 아

동이 1,800만 호주달러(약 1,180만 달러)를 도박에 썼고, 18~19세 청년 절반가량은 2억 호주달러(약 1억 3,159만 달러) 이상을 잃었다.

피어스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며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그녀는 “2023년 미국 온라인 도박 조사위원회(Murphy Inquiry)가 31가지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실행을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권리안에는 도박 광고 전면 금지, 사전 베팅 한도제, 국가 규제기관 설립, 아동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의 국민이 ‘도박 광고 금지’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업계와 미디어, 스포츠 단체의 압력 속에 ‘광고 축소’로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도박 광고를 줄이는 것은 담배 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해악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힌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정치인들과 주 정부는 도박 세수에 중독돼 있으며, 언론사와 스포츠 단체, 노동조합, 심지어 일부 교회까지 도박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개혁은 늘 미뤄지고, 그 사이 취약한 국민은 계속 착취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박은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중독을 조장하는 산업”이라며 “전체 도박 산업 수익의 77%가 상위 5%의 문제 도박자에게서 나온다. 이는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도덕적 시험”이라며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이익보다 우선시할 것인가, 아이들을 약탈적 산업으로부터 지킬 것인가, 정부와 기업이 취약한 사람을 보호할 것인가 착취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때 세계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았던 호주가 지금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듯, 도박 개혁도 같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피어스 대표는 도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6대 개혁안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도박 광고 전면 금지 △사전 베팅 한도 및 현금 없는 결제 카드 도입 △아동 보호 강화 △국가 차원의 통합 규제기관 신설 △도박의 공중보건 문제화 △정치권과 단체의 도박 수익의존 탈피 등이 포함됐다. 최승연 기자

트럼프, 칠리 커크에 사후 ‘대통령 자유 훈장’ 수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故 칠리 커크의 부인인 에리카 커크(왼쪽)에게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터닝포인트 USA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故) 칠리 커크(Charlie Kirk)에게 미국에서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훈장인 ‘대통령 자유 훈장(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수여했다.

커크는 자신이 18살 때 설립한 보수 성향의 단체 터닝포인트 USA(Turning Point USA)가 최근 주최한 행사에서 강연 도중 총격을 받아 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 장미정원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서 이를 커크의 아내 에리카 커크에게 전달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인물이자 자유를 위한 두려움 없는 전사”라고 칭하며, 자신을 강력히 지지했던 인물로 평가했다. 그는 또 이날 행사에서 좌파 정치 세력의 폭력과 테러를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사상과 논쟁이 설득력을 잃지 절박한 폭력과 테러 수단에 호소하는 극좌 무리들이 늘어나는 것을 목격해 왔다”며 “그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주장이 아무도 설득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사실

을 인식하며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커크를 살해한 주요 용의자는 자신이 사용한 탄환 일부에 좌파 표어를 새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외에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서의 치명적 총격 사건, 트럼프 대통령을 노린 암살 시도 등이 있따르며, 반파시즘 단체 앤티파(Antifa)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에리카 커크는 훈장을 받은 자리에서 “남편이 목숨을 잃지 않았다면 대통령에 출마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셨고, 저는 그것을 완수할 것”이라며 “햇볕은 이제 우리의 손에 있다. 제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으며, 터닝포인트 USA의 모든 학생들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여식에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보수 미디어 인사인 터커 칼슨(Tucker Carlson), 숀 해니티(Sean Hannity) 등이 참석했다. 최승연 기자

세계로교회서 설교했던 美 목사 트럼프 대통령 만나



故 찰리 커크가 설립한 터닝포인트USA의 Faith 의장인 랍 맥코이(Rob McCoy) 목사(맨 오른쪽)가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기운데)을 만났다. ⓒ세계로교회

지난달 28일 부산 세계로교회 주일예배에서 구속된 손현보 목사를 대신해 설교했던 미국 터닝포인트USA의 Faith 의장인 랍 맥코이(Rob McCoy) 목사가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터닝포인트USA 설립자로 총격 피살된 故 찰리 커크(Charlie Kirk)에게 미국 최고 민간 훈장인 ‘자유훈장(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추서했다. 이날은 커크가 살아 있었다면 32번째 생일이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맥코이 목사가 커크의 유가족 등과 함께 참석한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JD 밴스 부통령과 하원의장 등을 만나 담소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맥코이 목사는 얼마 전 세계로교회에서 설교할 당시 “단지 말 때문에 국민을 감옥에 넣는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며 손현보 목사 구속을 규탄했다.

또 그 다음날인 9월 29일에는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고신애국지도자연합(고애연)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맥코이 목사는 “손현보 목사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나라를 떠날 위험도 없었다. 그는 부산에서 신실하게 목회했다”며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양심을 지켰기에, 지금 임마음 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영광이 떠났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성경적 경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사무엘상 4장 22절) — 이 비극적인 선언은 세대를 넘어 올려 펴지는 예언적 경고로 들린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표지였다. 그때 태어난 아버지의 이름 ‘이가봇’(Ichabod)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신적 심판의 상징이었다.

조셉 마테라(Dr. Joseph Mattera) 박사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게재한 칼럼에서 “성경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교회가 귀 기울여야 할 경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았다고 해서 영광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적 타락과 무관심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마테라 박사는 미국 사도 지도자 연합(The U.S. Coalition of Apostolic Leaders), 그리스도 언약 연합(Christ Covenant Coalition) 등 여러 단체를 이끌고 있다.

마테라 박사는 구약과 신약의 본문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10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지도자의 도덕적 타락

사무엘상 2~3장에서 엘리의 아들 휴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성적으로 부패하고 제물을 도둑질했다. 그러나 엘리는 이를 단호히 꾸짖지 않았다. 마테라 박사는 “거룩함을 본으로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죄를 방치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영광은 떠난다”고 말했다.

2. 세속 문화에 동화

예레미야 7장에서 이스라엘은 성전에서는 예배하면서도 삶에서는 우상숭배와 불의를 행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고 경고하셨다. 마테라 박사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적응할 때, 거룩의 힘을 잃고 영광이 떠난다”고 강조했다.

3. 인맥과 혈연을 우선할 때

엘리가 아들들의 죄를 감싸며 하나님의 법보다 가족을 우선한 것은 ‘영적 연줄주의’의 전형이었다. 마테라 박사는 “교회가 성경보다 인간관계를 우선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잃는다”고 경고했다.

4. 지도자들의 우상숭배
예레미야 8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증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탄식하셨다. 그는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죄를 숨기는 이중적 지도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머물 수 없다”고 말했다.

5. 죄에 대한 슬픔을 잊을 때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은 백성의 죄악을 슬퍼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셨다. 마테라 박사는 “죄가 문제라기보다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더 큰 비극”이라고 말했다.

6.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지 않을 때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때를 알지 못했다’며 눈물 흘리셨다. 마테라 박사는 “오늘날 교회도 예배 프로그램과 행정에 집중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7. 첫사랑을 잊을 때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는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바르지만 ‘첫사랑’을 잊었다. 마테라 박사는 “예수님께서 등불을 끓기신다는 경고는 곧 하나님의 임재가 떠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8. 거짓 교리를 용납할 때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사상을 용납했다. 그는 “진리가 왜곡될 때 영광은 머물지 않는다”며 “이단과 혼합주의는 성령의 임재를 차단한다”고 경고했다.

9. 거짓 예언자를 허용할 때

요한계시록 2장의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마테라 박사는 “교회가 인격보다 카리스마를 중시하고, 겸증되지 않은 예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성령은 근심한다”고 말했다.

10.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빠질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였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앞에서 쫓아버리리라”고 말씀하셨다. 마테라 박사는 “편안함과 타협에 안주하는 신앙은 결국 영광을 잃는다”고 덧붙였다.

마테라 박사는 결론에서 “영광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죄와 타협, 무관심이 지속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거두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와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영광을 회복시키신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 예배 오후 11:00 세박예배 오후 5:30(화-금) 오후 6:00(토) EM 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김자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부 07:30AM -부 09:00AM -평일(월~금) 06: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 예배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 396-4441 www.gmcg.org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 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부(EM) 오전 10:30 대학령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후 10:30 학급별로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주님 CHURCH

주일 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 901-9119 Email: joonim0623@gmail.com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등이오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했던교회

8756 Woodlawn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3-8755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학여청년 오후 12:30
EM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co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8:30 EM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 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예배(평일)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일요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오후 6:00(화-토)

온혜와 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EM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 363-5887 iccc.office@gmail.com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후 11:00 교육부 예배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주일예배(주일) 새벽 7:0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예배 오후 5:30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Y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y.org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후 10:15 (한국어, 스페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Quesada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Y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y.org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후 2:00
주일예배 2부 오후 4:00
주일예배 3부 오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8:00
주일예배 5부 오후 10:00
주일예배 6부 오후 12:00
주일예배 7부 오후 2:00
주일예배 8부 오후 4:00
주일예배 9부 오후 6:00
주일예배 10부 오후 8:00
주일예배 11부 오후 10:00
주일예배 12부 오후 12:00
주일예배 13부 오후 2:00
주일예배 14부 오후 4:00
주일예배 15부 오후 6:00
주일예배 16부 오후 8:00
주일예배 17부 오후 10:00
주일예배 18부 오후 12:00
주일예배 19부 오후 2:00
주일예배 20부 오후 4:00
주일예배 21부 오후 6:00
주일예배 22부 오후 8:00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O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원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TOWING**헤어 것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크프(Beauty College) 최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정관장 라크라센타점, 새 주인과 새 출발

라크라센타 지역의 대표 건강식품 전문점인 정관장 라크라센타점이 새로운 주인과 함께 새롭게 출발했다. 지난 6년간 같은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 받아온 이 매장은, 지난 7월 이태훈·제시 부부가 새롭게 인수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기념하여 8월 15일부터 16일 까지 오픈 행사가 열렸고, 이어 10월 15일에는 정식 리본 커팅식이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La Canada Chamber of Commerce(라캐나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라캐나다 소방서, 시의원, 지역 비즈니스 오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는 라캐나다 고등학교 학생들과 미스 라캐나다가 함께 참석해 지역사회 의미 있는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관장이 우리 지역 건강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계속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새 주인 이태훈 대표는 “정관장은 단순한 건강식품 매장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 정성과 건강을 선물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



정관장 라크라센타점.

장하고 사랑받는 매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 주인이 인수한 이후 매장은 더욱 깔끔하고 넓은 공간으로 재정비되었으며, 제품 구성도 다양화되어 방문객들이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소중한 분들을 위한 선물을 고르기에 좋다. 또한 건물 전체가 리모델링되어 쾌적한 환경과 넉넉한 주차 공간(매장 뒤편)을 갖추고 있어 이용 편의성도 크게 향상됐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K 문화가 미국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K-푸드와 K-팝을 넘어 이제는

K-헬스의 시대, 정관장 라크라센타점은 바로 그 중심에서 ‘K-진생’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타인종 고객들 사이에서도 흥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인공첨가물이 없는 100% 천연 식품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리본 커팅식을 통해 정관장 라크라센타점은 지역사회 건강 명소이자 K-헬스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했다. 김민선 기자
3134 ½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GIFT, ‘정신건강 이해와 위기 대응’ 특별과정 개설

GIFT 전인코칭전문학교가 ‘정신건강 이해와 위기 대응’ 특별과정을 개설한다. 기간은 총 7주로 10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월 저녁 7~10시에 Zoom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목회자와 선교사는 영혼을 돌보는 일을 넘어, 정신적으로 아픈 이들을 분별하고 적절히 연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과정은 CWCTP(GIFT 크리스천 전인코치 양성 프로그램)의 핵심 필수 과목으로, 임상심리학 · 신학 · 코칭 · 의학을 아우르는 전인적 접근을 바탕으로 설계됐다. 수강생은 7주 동안 ▶ 불안, 우울, 자살위기, 중독 등 주요 정

신질환의 징후와 초기 대응 방법,

▶ 경청과 공감, 판단하지 않는 대화의 기술, ▶ 교회·선교 현장에서의 안전한 개입 및 전문기관 연계, ▶ 리더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는 예방적 마음돌봄 리더십 등의 내용을 배운다.

강의는 임상심리학 박사 리디아 전(Psy.D.)과 의학박사 조셉 전(M.D.)이 맡는다.

이 과정을 수료하는 수강생에게는 두 가지의 공신력 있는 특전이 제공된다. 첫째 미국 MHFA (Mental Health First Aid) 공식 자격증 발급: 수료 시 공신력 있는 미국 MHFA 공식 자격증이 발급된다. 둘째, 대학원 석사 학점 인정: 본 과정은 샐렘 국제 대학원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정되며, 향후 학위 전환 시 활용 가능하다.

10월 27일(월) 개강하며 10월 24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등록하는 모든 분에게 특별 할인과 입학 등록비 \$200 전액 면제를 제공하며, 목회자, 선교사, 사모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0 특별 장학금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그룹 할인’ 혜택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등록 링크: <https://giftcoachinginstitute.com/ko/about/gift-wpci-enrollment-form/>

웹사이트: <https://giftcoachin-ginstiute.com/ko/>

이메일: info@giftcoachinginsti-tute.com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5년 건축의 딛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진유철 칼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속이는 자, 빌끔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의 뜻대로 자신의 힘과 꾀로 살았던 야곱은 상동이 형에서 속여 축복을 가로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재산을 가로채 야반도주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살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에서가 20년 전 아버지와 자신을 속인 일에 대한 분함을 가지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으로 큰 두

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은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음에도,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꾀와 방법을 동원하여 재산을 두 떼로 나누고,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압복강 나루를 건너게 한 후, 자기는 마지막까지 도망칠 수 있도록 훌로 남았습니다. 이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지지 않고 버티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해 버리자 자아가 깨어지며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씨름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기도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전승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견뎌낸 우수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1,878년 동안의 모진 세월 가운데 언제든지 쉽게 들고 도망갈 수 있는 보석과 귀금속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석상이 많고, 현재도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이아몬드 세공기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또한 가지, 머리는 불어 있어야 사는 것이니까 학문과 과학, 문화 예술 미디어, 기술과 벤처 분야 등 지식으로 일하는 분야에 힘을 쏟았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도 안 되는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자의 20%나 되는 이유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토지소유 제한이나 길드 가입 제한 때문에 농업수공업에 종사하기가 어려웠고, 또 노동 없이 돈 버는 이자수입을 금기시했던 기독교나라들 속에서 유대인들은 대출, 환전, 금융업에 집중했습니다.

다. 그래서 지금도 금융업, 펀드매니저나 해지 펀드, 투자은행, 월가에는 조지 소로스, 앤런 그린스펀, 재닛 옐런, 마이클 블룸버그 등 유대인 큰 거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강한 유대인을 유일하게 따라잡는 민족이 한국인인데, 이유와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고난이 많았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고,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기도로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기도로 바꾸었고, 잠을 이기며 철야기도하고, 배고픔은 금식기도로, 일이 안 풀려 근심걱정이 가득차면 작정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져 국가와 가정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도로 바꾸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원칙, '기도하면 이스라엘, 안 하면 야곱'을 체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강준민 칼럼

친밀한 사랑의 비밀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하지 않은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한 것과 소유한 정도만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제게 충격을 줍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 25:29). 신비롭게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잘 모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불멸의 다이아몬드를 잘 모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엄청난 가능성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어떻게 자신이 소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남은 눈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좋은 만남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서로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고 말해 주는 만남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해줄 때 알아차리게 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눈과 알아차림이 우리 삶을 풍성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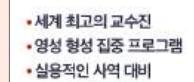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두신 본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본능은 성장 본능입니다. 어린 아이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 안에는 넘치는 성장 본능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라고, 자성이 자라고, 지혜가 자랍니다. 사랑도 자랍니다. 조금만 성장해도 동생을 돌보고, 엄마 입 가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엄마 입

에다 맛있는 것을 넣어 주려 합니다. 성장 본능은 곧 사랑 본능입니다.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친밀한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희생 없는 친밀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익숙함과 친밀함은 달릅니다. 익숙함은 피상적입니다. 익숙함은 걸모습만 보여주는 관계입니다. 익숙해지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함은 무례함을 낳습니다. 무례함을 친근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이기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짚어지고, 반말을 합니다. 말투가 거칠어집니다. 그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익숙함이며, 무례함입니다. 친밀한 사랑의 비밀은 결손에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결손에서 친밀함이 시작됩니다. 강하면 경쟁하고 다투지만, 약하면 연합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더욱 따뜻하고 부드럽게 서로를 대하게 됩니다. 헨리 나우웬은 "친밀함의 비밀은 연약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 무장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웬은 가정의 식탁과 부부의 친밀한 자리에서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군인도 식탁과 침실에서는 무장을 해제합니다. 남을 공격하는 무기를 내려놓을 때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친밀한 사랑의 비밀은 긍휼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동안 그 사람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반면에 우리가 누군가를 긍

휼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판을 내려놓게 됩니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약점도, 부족한 점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품으면 상대방 안에 있는 그림자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친밀한 사랑의 비밀은 존중에 있습니다. 예리 프롬은 성숙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고 말합니다. 소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소유한 다음에는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최선을 다하다가, 결혼한 후에 상대방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헌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억압하거나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뿌리와 날개를 함께 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고전 13:5). 사랑하는 대상에게 필요한 경계를 지켜 줍니다.

친밀한 사랑의 비밀은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처럼, 사랑의 기술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사랑의 기술은 평생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늘 기본에 충실히 해야 합니다. 친밀한 사랑을 위해 지속적으로 책을 읽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에 참석해야 합니다.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필요하면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성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살기에는 너무 짙습니다. 친밀한 사랑의 비밀을 배우고 익혀서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202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신입생 모집

탈북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북"

유튜브: "탈북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대학(BCA),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환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Midwestern Theological Seminary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회(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 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금은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리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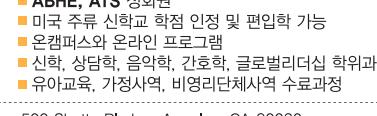
• 최첨단 학술적인 온 오프라인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회사, 석사, 박사)

• SEVIS-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퍸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경영사학, 비영리단체사학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www.apu.edu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귀생당®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가정의 달 특선

KISEIDO EYE NOON EY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우는 청정 열매인 마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 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활성산소 완화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장내 효소 증가
- 소화기능 개선
- 빈혈, 간 기능 개선
- 면역체계 향상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델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닌, 피페린, 빌베리

SINCE 1975
귀생당
KISEIDO U.S.A., Inc

213.384.3333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목동 칼럼

잊을 수 없는 2025년 네팔 & 베트남!



신 병 옥 목사
미라클LA 교회
비전 50 선교회

교절기로 정하여 실행하여 왔었다. 선교절기에는 선교팀이 돌아오기까지, 전교인 40일 연속금식기도가 진행이 되고, 선교절기 기간에 요나선교학교를 오픈하여 단기선교팀이 집중적으로 여러가지 훈련과 준비를 하여 비전 50 단기선교팀이 출발하게 된다. 올해 선교절기 기간에는 비전 50 네팔본부와 비전 50 베트남 본부와 연결이 되어 필자교회에서는 비전 50 개별 국가본부가 설치되어 있는 두 국가를 향해 각각의 선교팀을 파송하게 되었다. 7월 20일 첫번째 비전 50 네팔 선교팀은 EM 리더쉽의 인도를 따라 성도들이 출발하였다. 카투만두에 도착하여 비전 50 네팔본부산하의 카투만두 지역의 130명의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EM pastor와 필자는 그곳의 목회자들의 사역을 축복하고, 그들의 목회에 유익이 되는 강의들로 섬겼었다.

선교팀의 성도들은 그곳의 학생들을 위주로 말씀을 나누고, 장학생 면담과 여러가지 사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비전 50 네팔본부에 속해 있는 비전교회를 방문해 예배하고 위로하였다. 그 분들은 시각장애자들로 사회에서 격리된 도시의 변두리에 자녀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다. 생활의 어려움도 많이 있기에 많은 식량을 지원하였고, 자녀들은 장학사업을 통하여 자녀들의 미래를 격려하였다. 부족하지만 함께 하였던 팀원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의 치유를 위해

모두 간절히 기도하였다.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네팔에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붕괴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비전 50 네팔 본부의 현지 목회자들이 요청하여 온 기도제목은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던 네팔 정부가 무너졌지만, 더욱 긴장하는 것은 네팔의 압도적인 힌두교로 인하여 극단적 힌두교 정부가 들어서면 네팔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이 염려되니 기독교 교회에 우호적인 정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였다.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린다.

9월 28일, 비전 50두 번째 선교팀이 파송되었다. 두 번째 비전 50 선교팀은 비전 50 베트남 본부와 연결이 되었다. 우리가 아는대로 베트남은 칠레와 같이 남북의 길이 엄청나게 길다. 북쪽 하노이에서 남쪽 호치민 까지 철도 거리가 약 1,726km의 거리가 된다. 하여 비전 50 베트남 본부는 남부, 중부, 북부 지부로 조직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북부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필자 부부, 시무 장로 부부 3팀, 모두 8명의 부부가 동역을 하였다. 선교도 귀하였지만, 시무장로 부부들과 함께 선교와 삶을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여 저희들은 두팀으로 나누어 사역을 하였다. 필자는 110여명의 목회자들을 만나 설교와 사역과 여러 대화와 축복의 기도를 나누었다. 또한 장로님 부부들은 는 70여

명의 북부지역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사전에 준비했던 강의와 간증들을 함께 나누었고, 베트남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며 서로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최근에 이루어졌던 비전 50 선교는 필자에게 남다른 소회를 안겨주었던 선교였다. 첫째는 우리 자녀들, EM의 리더쉽이 선교를 이끌어주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무장로님 부부들이 모두 선교의 최전선에 함께하는 참된 전우가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선교를 위해 무릎선교사로 후원하시던 모친의 소천이었다. 한국에 계신 형님의 전화가 왔었다. 아무래도 어머니 상태가 위중하니 뵐려 오는 것이 좋겠다는 전화였다. 형님의 목소리 너머로는 어머님의 목소리도 또렷이 들렸다. 어머니는 갑자기 몸이 안 좋게 느껴져 아들집에서 하루를 보내시고, 아침을 드시고 자신의 발로 걸어서 병원에 가셨다. 그러나 필자가 급히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로 건너 가셨다는 카톡을 인천 공항에서 보게 되었다. 걸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다음날 어머니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것이다. 새벽마다 아들이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목자가 되기를 기도하신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금도 나의 귓전을 생생하게 울리고 있다. 하여 어머니의 기도대로 비전 50과 함께 오대양 육대주에 복음을 전할 것을 다시 다짐해 본다. <다음 회에 계속>

필자가 섬기는 미라클 LA 교회는 안으로는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기를 꿈꾸고, 밖으로는 선교적 교회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중요한 방향성으로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교회내의 EM에서 EM pastor와 EM co-leader에 의해 교회에서 기준에 진행하고 있었던 DTS가 처음으로 오픈되었는데 담임목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출발이었다. 이렇게 필자가 감격적이라고 느끼게 된 것은 이미 필자의 교회에서 지난 7월에 파송했던 비전 50 네팔 선교팀도 EM이 리더쉽 팀에 의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필자의 교회가 다음 세대에 우리의 두 가지 영적 유산을 자연스럽게 물려주고 있다는 것에 감격하였다.

필자의 교회는 비전 50 선교를 위해 다양한 선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항상 6~8월을 선

강태광 칼럼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섬기는 영광과 축복!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해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기는커녕 교회가 세상을 절망시키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는 악타까운 장면도 접한다. 그런데 적어도 We Bridge에서는 교회를 존귀히 여기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교회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We-Bridge에 있다. 이것이 We Bridge가 귀하고 아름다운 이유이다. 지난 3년간 우리 모두 We-Bridge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선언했다. We Bridge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있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종과 교회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교회들의 아름다운 현신들! 이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격려하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을 향해 힘찬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를 섬기며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We-Bridge에는 4개의 교각이 있다. 첫째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들. 둘째 주

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주님의 몸 된 교회들, 셋째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현신자들 그리고 넷째, 이 거룩한 섬김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감사하게도 지난 3년간 네 개의 교각이 든든하게 We Bridge를 세웠다. We Bridge를 만난 것을 감사하자! 지난 3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아쉬움이나 부족함이 없지 않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섬길 걸 하는 후회도 있다. 좀 더 세련되게 사랑하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섬기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려 시도했던 모든 몸짓은 거룩하고 아름답다. 아쉬움과 후회 만큼 성숙할 것으로 믿으며 감사한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축복이요 영광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개척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귀하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는다.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주님의 몸 된 다른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은 멋지고 거룩한 일이다. 이 멋지고 거룩한 사랑을 실천한 We-Bridge 운동에 동참한 것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We-Bridge 운동이 우리 시대의 문화가 되고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어 다음 세대에 전해 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 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힘

장점 2
커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 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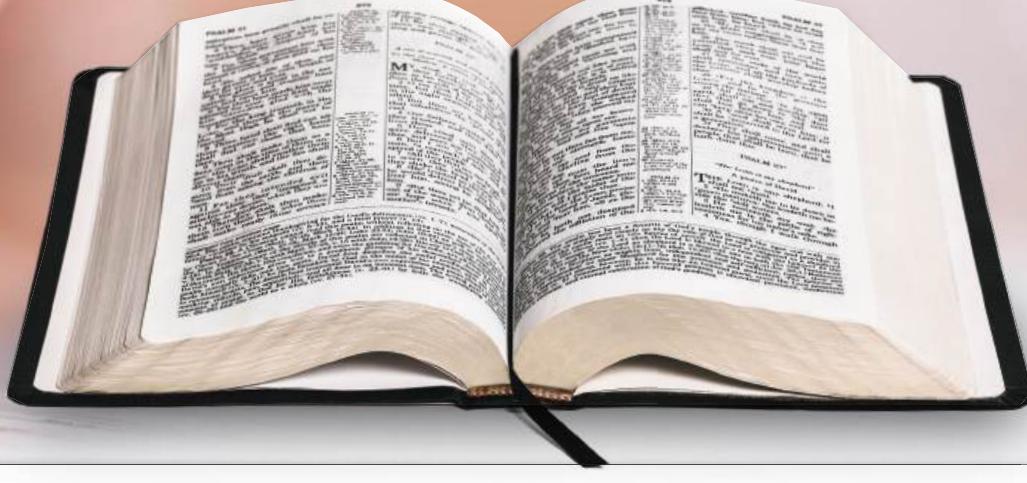
문의 : 213-434-1170



성경필사 장학생 모집

제3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를 쓰며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며,
가슴 깊이 새겨진 구절마다 생명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지난 1기와 2기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불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중 선택 가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장학금 1인당 \$1,000 (선정인원 30명)

응모대상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나이 만14세~23세)

등록신청



신청방법 QR코드 스캔 후 신청

신청마감 2025년 11월 8일(토)까지

장학생 선정발표 2025년 11월 15일(토) 개별통보

필사노트 제공 및 교육 2025년 11월 22일(토) 오전 10시

장소 세계등대교회(담임 김도일 목사 1479 E. Broadway, Glendale, CA 91205)

장학금 전달식 2026년 7월 중(장학생들에게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알려 드림)

문의 기독일보 213-434-1170 chdailyreporter@gmail.com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기독일보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 “결국 다 잘 될 거야”란 뜻일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Heaven Rules
낸시 드모스 저작
구지원 역 | 생명의말씀사
304쪽 | 21,000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는 무력감에 좌절하며
희망을 내려놓아야 할까?

‘하나님의 주권’ 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의 인식,
이해와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큰일부터 아주 시시콜콜한
일까지, 모두 선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한다. 그 진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Heaven Rules, HR)’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 리스도인은 없다. 하지만 삶이 고 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방식이 아닌 모습으로 세상이 변해갈 때, 아무것도 선한 것 이 나올 수 없을 듯한 상황을 누구 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우 리의 이해와 공감의 범위를 넘어서 일들이 발생할 때,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보좌에 계시지 않으신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 겪어야 했던 상황이 그랬다. 나라를 잃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 단도 빼앗겼다. 남의 나라에 끌려가 그 나라 법과 전통, 문화와 종교가 요구하는 압박을 견뎌야 했다. 불합리하고 불경한 일이 계속 자행되더라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봐야 했다. 현실은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진리로 현실을 계속 재해석해야 했다. 이는 단지 바벨론이 다스리던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할 진리가 아니라, 오늘날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진리이기도 하다.

낸시 드모스 월계마스는 이제 국내에 제법 소개된 훌륭한 여성 사역자이자 저자 및 강연가이다.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세움북스, 2023)>, <용서를 선택하라(생명의 말씀사, 2023)>, <2020 여성들이 믿고 있는 거짓말(세움북스, 2024)>에 이어 네 번째 책인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가 생명의 말씀사를 통하여 2025년 1월 출간됐다.

뛰어난 은사를 받은 여성 사역자들이 많이 소개되는 것은 정말 유익한 일이다. 디도서 2장 4절에서는 여성이 여성들을 교훈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그리고 신중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가정을 돌아보도록 양육하라고 명령한다. 우리에겐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성숙한 여성이 교회 안팎으로 많이 필요하다.

특히 저자 낸시는 이 책을 저술할

때, 남편 로버트에게 두 종류의 암이 있음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진리로 현실의 문제를 이겨나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볼드는 것이 무엇인지 다니엘서에서 얻은 교훈과 실제 삶에서 적용한 진리를 가지고 독자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는 총 9 장으로 구성돼 있고, 전체적으로 다니엘서 내용 흐름을 따른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믿는자의 결론적 다짐은 마지막 9장에 10가지로 요약돼 있는데, 저자 낸시가 모든 독자에게 일으키기 원하는 다짐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우리는 주변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 성으로 살기로 다짐한다 ②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나, 자유가 위협당할 때나, 위로를 빼앗길 때, 겁에 질리거나 좌절하지 않겠다 ③ 우리는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한다 ④ 우리는 기도한다 ⑤ 우리는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으로 산다 ⑥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두신 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⑦ 우리는 교만에 저항하고 겸손을 추구한다 ⑧ 우리는 혼란스럽고 통제 불능인 문화 속에서 확고함과 침착함을 유지한다 ⑨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교만하고 불경건한 지도자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음을 믿는다 ⑩ 우리는 우리 삶과 세상의 위기를 거짓 신들이 폭로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로 여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을 ‘결국 다 잘 될 거야’로 알아듣는다. 어떤 면에선 맞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다 잘 될 거야’라는 말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결국 주실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Pexels

기대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선한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실 때,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심지어 누군가의 죄까지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란, 믿음의 고백이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 무슨 일을 허락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 그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정신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대체 어딨는 네가 익지한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고

잠언 3:26

For the Lord will be at your side
and will keep your foot from being snared.
PROVERBS 3:26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Southwest's leading provider of quality

Desert Honey since 1945!

We offer a wide variety of 100% pure and natural Arizona honey.

자연의 정직함, 건강을 선물하세요

미국 프리미엄 허니 브랜드-

CROCKETT HONEY아리조나 사막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세 가지 특별한 꿀이 건강과 품격을 전합니다.
한국 방문 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꿀·꽃가루·로열젤리의 황금 조합

자연이 준 면역력, 에너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Honey 3lbs

\$25+tax

① Desert Blossom Mesquite Honey

사막의 야생화와 메스키트 꽃에서 채집된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가득한 천연 꿀

Bee Pollen

\$45+tax

② Crockett Honey (Original)

가장 순수한 꿀의 기본! 건강한 단맛과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전통의 맛!

차, 토스트,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Royal Jelly

\$25+tax

③ Crockett Honey with Royal Jelly

꿀 속의 황금, 로열젤리를 더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영양 강화 꿀!

특별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로 안성맞춤

(Pick up Only)

전화 예약주문 213-434-1170

prozusa1@gmail.com

Pick up 장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천병근, 언약적 기반 위에 세운 예술

1950년대 기독교 시각예술 선구적 화가

부친은 일제 때 4차례 옥살이한 목회자

작가들 전쟁에도 작품 활동 계속
<삶>, 불안 속 주님 신뢰 전달해
1954년 첫 개인전, 신앙 주 테마
기독 미술 토착화에도 깊은 관심

C. S. 루이스는 '전쟁의 학문(『영광의 무게』, 흥종락 역, 흥성사, 2019)'에서 "전쟁이 인간 영혼의 관심을 계속 사로잡기에는 본질적으로 부족하기에, 우리의 관심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전란 중일지라도 지적 활동과 미적 활동을 계속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루이스에 호응이라도 하듯, 한국 크리스천 작가들은 6.25 전쟁 기간에도 봇을 놓지 않았다. 재료가 떨어질 때까지 작업에 전념했다. 천병근 작가가 그런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일본 도쿄 YMCA 예술 주임이자 기독교 화가인 야마다 미노루(山田 稔)에게 사사하고 귀국한 천병근 화백(1928~1987)은 목포성결교회에서 목회하던 부친을 따라 목포에 정착했으며, 목포에서 미술 교사로 교편을 잡고 있었다.

그러던 중 6.25 전쟁 발발로 부산으로 피난을 가 있었다. 그의 작품 발표도 바로 이 시기와 일치한다. 1950년 민총 구국대가 주최한 <중군 속 사미술전>(9. 7~9)에 <기독 의용사(義勇士)>, 1951년 3.1절 미전에 출품한 <세례>, 8.15 기념 전에 출품한 <이사야서의 권위>, 1952년 8.15 기념전에 출품한 <성모자> 등 기독교 신앙을 주제로 한 작품들로 특징지어진다.

1953년 대한미술협회전(부산 향상의 집, 4. 8~4. 14)의 출품작 <삶>은 한복을 입은 노부부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전경에는 합장한 남성과 성경을 손에 쥔 여성, 후경에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보인다. 예술, 역사,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주한 미대사관 토마스 캐실리(Thomas Cassilly III, 1923~

2021)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삶>이란 작품에서 느낀 첫 인상은 매우 진실한 예술작품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작가 자신이 느끼지 않고서는 도저히 착안할 수 없을 것이며 색채의 부드러운 솜씨와 작가의 훌륭한 구상력에 더욱 놀랍다. 작가의 대담한 필법은 인물의 두부(頭部)와 합장한 손과 부인의 손에 쥐어진 성서 등의 조각적인 수법으로 부부의 신앙생활을 한층 더 두드러지게 하며 겸은 선은 경건과 강인함을 표현한다(캐실리가 작가에게 보낸 편지, 1953. 4. 17.)".

T. 캐실리를 매료시킨 부분은 노부부의 모습이었다. 특히 전란 중에서도 소망을 품은 부부의 경건한 모습이 특별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 작품은 해당 인물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힘 있는 필선과 임파스토, 그리고 후경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배치하는 등 작가의 치밀한 화면구성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작품을 발표한지 70년을 훌쩍 넘긴 지금 보아도 묵직한 울림을 안겨주는 작품이다. 지극히 불안한 상황에도 부부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캐나다 연합장로교 의료선교사 엘다 스트러더스(Elda Daniels Struthers, 1906~1997)에 의해 캐나다 웨스트데일 연합교회(Westdale United Church)에 기증됐다가, 유족의 요청으로 65년 만에 국내로 반환돼 2019년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개최된 유작전에 공개된 바 있다.

그의 생애에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은 그의 부친 천세광 목사(1904~1964)였다. 천세광 목사는 일제시대 네 차례 옥살이를 했다. 그 중 한 번은 6.10 만세운동 때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일경에 의해 체포돼 옥고를 치른 일이다.

다른 세 번은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힘쓸 때 일제가 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이를 거부하는 운동을 펼쳤다는 이유로 1940년

진주 형무소에서 7개월간, 1943년 성결교회 강제 해산 시 전국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검속할 때 불잡혀 대구 형무소에서 9개월간 옥살이를 했고, 1945년 8월 11일 사상범 예비 검속 때 다시 체포돼 옥중에서 8.15 해방을 맞았다. 불의를 미워하고 교회와 나라가 곤경에 처했을 때 편 박하고 희생을 피하지 않았던 지도자였다.

부자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란 신앙을 일상의 양식으로 삼아 사는 것이고, 또 다른 점은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천병근은 기독교 신앙을 삶의 기준으로 삼은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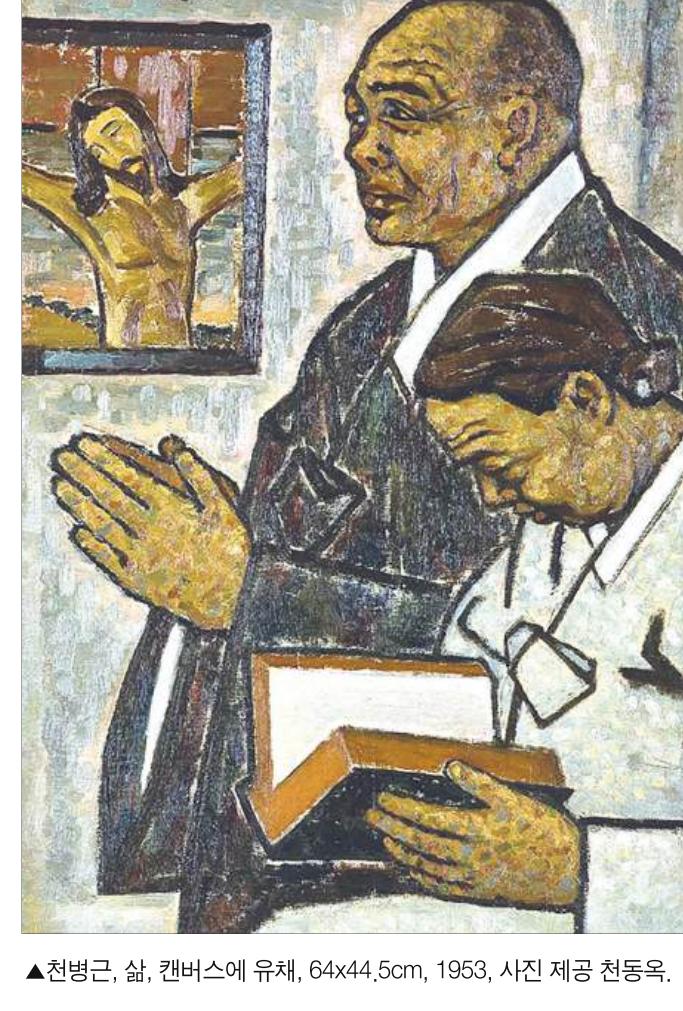
천병근의 첫 개인전은 휴전 직후인 1954년 광주 기독청년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출품작은 <소묘>, <정물>, <수평선>, <언덕>, <소녀와 유자>, <귀향>, <포스>, <소녀와 망아지>, <목동>, <자화상>, <파도>, <아담과 하와>, <세례>, <살로메>, <주와 함께>, <피에타> 등 22점이다. 현존하는 작품은 제한적이지만 대체로 풍경과 인물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전의 주축이 된 것은 기독교 신앙을 테마로 한 것인데, 대표작으로는 <피에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1954년 전시장에서 찍은 사진 배경에 나타나 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리스도를 묘사한 <피에타>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을 불들며 애통해 하고 있다. 그림 우측에는 나무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좌측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위에 떠 있는 태양이 목격된다. 흑백사진이라서 색조까지 파악할 수 없으나 윤곽을 두른 검은 필선효과와 디테일을 생략하는 대신 매스로 처리한 표현주의적 수법이 눈에 띈다.

두 번째 개인전은 다음 해인 1955년 광주 미문화원 화랑에서 개최됐다. 전시를 기획한 주인공은 앞에서 소개한 토마스 캐실리였다. 캐실리는 대한미술협회전에 출품된 <삶>을 보고 그의 초대전까지 마련하게 되었다. 이 개인전에는 <소녀와 망아지>, <월광>, <초상>, <해바라기>, <유자와 소녀>, <자화상>, <어린 양 예수> 등 22점이 출품되었다.

이 중에서 <어린 양 예수>는 한복을 끌게 차려입은 소년과 어린 양을 소재로 한 일종의 우의화로 그림 옆에 조각집과 성(城)을 배치했다. 이를 본 김환기는 "그의 예술은 향토적인



▲천병근, 삶, 캔버스에 유채, 64x44.5cm, 1953, 사진 제공 천동옥.

냄새가 강렬하다. 이 향토적인 것 - 우리가 세계 미술에 들고 나갈 것은 이것이 아닌가 한다 (천병근 기념사업회, 『천병근 화집』, 에이엠 아트, 2019, 242쪽)"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작가는 기독교 미술의 토착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1956년 제8회 대한미술협회전에 출품한 작품 <자애>가 예수에게 입 맞추는 마리아를 표현한 것이라면, 1959년 동화화랑 개인전 때 발표한 <월광>은 부엉이와 호랑이, 두 마리의 사슴 사이로 한복을 입은 여인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구도로 되어 있다.

두 작품은 천병근이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온 기독교가 문화적·정서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익숙한 민속적인 모티브를 배치했다. 평소 "가장 훌륭한 예술은 가장 종교적인 것"이라는 말을 좋아한 그는 기독교적 퍼스펙티브를 갖고 작품에 임했다. 1959년에는 그의 주도로 <성미술전(중앙공보관 화랑)>을 개최했는데, 주요 작가로 천병근, 박수근, 김순련, 이철경, 천동옥, 이항성, 천경자 등이 참여했다.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도 참여한 친목 성격의 전시였다.

전시 기획 동기까지 자세히 파악할 수 없으나, 구한말 선교사들에 의해 개화를 맞이한 것처럼 새 시대를 맞아 기독교 신앙에 바탕한 문화를 확산하고 복음의 진리를 알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는 불모지였던 1950년대 한국 화단에서 기독교 시각예술 발전을 위해 힘썼던 선구적 화가였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천병근 회화전(기독청년회관, 1954년 3월 27~31일) 리플렛.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리스도를 묘사한 <피에타>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을 불들며 애통해 하고 있다. 그림 우측에는 나무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좌측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위에 떠 있는 태양이 목격된다. 흑백사진이라서 색조까지 파악할 수 없으나 윤곽을 두른 검은 필선효과와 디테일을 생략하는 대신 매스로 처리한 표현주의적 수법이 눈에 띈다.

두 번째 개인전은 다음 해인 1955년 광주 미문화원 화랑에서 개최됐다. 전시를 기획한 주인공은 앞에서 소개한 토마스 캐실리였다. 캐실리는 대한미술협회전에 출품된 <삶>을 보고 그의 초대전까지 마련하게 되었다. 이 개인전에는 <소녀와 망아지>, <월광>, <초상>, <해바라기>, <유자와 소녀>, <자화상>, <어린 양 예수> 등 22점이 출품되었다.

이 중에서 <어린 양 예수>는 한복을 끌게 차려입은 소년과 어린 양을 소재로 한 일종의 우의화로 그림 옆에 조각집과 성(城)을 배치했다. 이를 본 김환기는 "그의 예술은 향토적인

결혼할 준비가 되셨나요?

무료로 신앙을 기반한 지역 싱글들과 함께하세요

1. 신규 지원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1차 면접 | 매치메이커와의 만남

저희는 신앙에 기반한 안전하고 개인적인 매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가치관과 삶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을 연결해 드립니다.

2.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칭을 찾는 동안 초대를 기다리세요.

그룹 이벤트 | 시간 이벤트, 식사 포함

엄선된 지원자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맞는 만남을 위한 개별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편안하고 따뜻한 이벤트를 만들어 드립니다.

3. 다른 싱글들을 만날 수 있는 행사에 등록하세요.

싱글 수련회 | 2박 3일 (식사 5회 포함)

아득한 산 속 휴양과 함께 활동, 대화, 그리고 만남의 기회를 통해 성장하고, 우정을 쌓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HEAVENMATCHED.COM

GOD IS OUR MATCHMAKER!

여기를 스캔하여
무료로 가입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7-28)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결혼 생활에서 기쁨과 삶의 목적을 찾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꾸리도록 돋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사역은 온라인 데이트를 대체하는 안전한 대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경건한 결혼 생활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적합한 사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김한나, 설립자/소유주

문의전화 (714) 510-6585 SaeArc@gmail.com



제2기

We Bridge

교회 모집

We Bridge 사역은?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가
아직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교회를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사역

예배의 회복과
건강한 교회 성장을
돕는 사역

목회자 자기 개발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제공

We Bridge 교회 선정기준

1. 교회 설립 10년 미만의 교회
2. 자체 건물이 없고 예배 장소를 빌려 예배 드리는 교회
3. 건강한 교단의 교회
4. 담임 목사 나이가 59세 미만, 담임 목사가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교회
5. 예배인원이 성인 40명 이하의 교회

선정된 교회에 주어지는 혜택

3년간 매월 \$500 지원 (2026년 1월 ~ 2028년 12월)

■ 신청기간 : 2025년 10월 25일(토)까지

■ 신청방법 :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선정발표 : 2025년 11월 1일까지 개별통지

■ 문의 : 기독일보 213-434-1170
chdailyla@gmail.com



“교회가 교회를 세웁니다”

We Bridge 사역 1기 감사 및 2기 출범예배



날짜 :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0시 ~ 1시

장소 :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